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 “무사히 건넜다는 소식 전해 주시오”

초의선사가 추사를 찾아 제주를 찾은 것은 1843년경이다. 당시 소치는 제주목사 이용현(李容鉉)의 막하(幕下)에 머물다가, 추사의 소개로 해남 우수사로 부임한 신현의 막하로 옮겼다.

따라서 초의가 제주도에 머물 당시 소치는 제주 목사의 막하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소개하는 추사의 편지는 <나가목연첩>과 <영해타운첩>에 수록된 것으로, <완당전집> <여초의>에는 누락된 것인데, 이 내용으로 보아 당시 초의는 제주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말을 타다 다친 상처가 더 심해졌던 초의는 한 동안 제주 객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가 보다. 초의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던 추사였지만 유배된 죄인의 처지였기에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 마음을 졸이며, 하루라도 빨리 대흥사로 돌아가길 재촉하는 그의 편지는 이렇다.

아픈 곳이 더 심해져 차도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객지에서 손님을 지내며 치료가 여의치 않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 졸이며 걱정하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다시 생각해 보니 병든 몸으로 어찌하여 빙빙 댄들며 머물러 있기만 하고 곧 바로 돌아가지 않으십니까. 절대로 여기에 얽매어 방심하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가령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떠나는 배가 있으면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잡고 이별할 수 없는 것이 정말로 서운하지만 합니다. 먼 앞날을 생각 생각해서라도 병든 몸을 이끌고 오가다가 쓸데없이 몸만 망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바로 떠나 이곳에 대해서는 마음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에 침규를



<영해타운첩>

추사의 지척에 있고 싶은 초의 스님  
초의의 아픈 몸 걱정 가눌 길이 없어  
대흥사로 돌아가길 재촉하는 추사

보내 대신 작별을 대신합니다. 모든 것은 침규의 입에 (침규의 입이 어떻게 하느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배가 순풍에 따라 뜻한 대로 건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만 줄입니다. 돌아간 뒤에 바로 무사히 건넜다는 소식을 전해주시시오. 8월30일 늑편

(即聞患處添頓 不得差安 客中之客 調治知難如意 不勝憧憧懸慮 第更思之 以若病軀 何以低回遲留 不即歸去也 切勿以此牽礙 放心回旋 雖今明如有船發 幸圖付歸 如何 不得把別 寔屬悵悵 百里前頭 又不可曳病來往 徒致觸扶 亦須斷意直往 無使顧係於此中 亦可也 茲以委送鍼舄 以爲替別之也 都在鍼之口致耳 餘只翼一帆隨順 如意波羅密 姑不具聲 惟歸後 即示安過回音 八月晦日 勸便)

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의의 아픈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은 듯하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이리 저리 전전했던 초의의 처지를 알고 있었던 추사는 “아픈 곳이 더 심해져 차도가 없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가눌 길이 없을” 정도로 걱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의는 추사의 지척에 있으면서 지기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은 심정이 강했던 것일까. 좀처럼 제주를 떠나려하지 않았나보다. 지기의 이런 마음 모를 리 없던 추사였기에 “병든 몸으로 어찌하여 빙빙 댄들며 머물러 있기만 하고 곧 바로 돌아가지 않으냐”는 것이다.

“절대로 여기에 얽매어 방심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곧 바로 배편이 되는대로 대흥사로 돌아가길 재촉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고” 바로 떠나 후일을 도모하잔다.

서로 사모하는 정을 나눈 벗, 추사는 뱃길을 떠나는 초의를 위해 자기를 대신해 침규(鍼衄)를 보내 초의의 무사안락을 기원하였다. 침규는 뱃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준다는 바닷고기로, 공미라고도 부른다. 실제 침규가 뱃길을 인도했지는 알 수 없지만 초의를 위한 추사의 마음을 이렇게 절절한 것이었다.

풍량을 헤치고 떠나는 초의, 성치 않은 몸으로 떠나야했던 당시의 상황을 잘 드러낸 이 편지는 “돌아간 뒤 무사히 건넜다는 소식을 전해”달라는 이 말은 초의를 배려하는 추사의 우정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 “불교 복지 미래는 팽창보다 전문화 필요”

이건식 원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장)

“이제 복지도 전문화가 필요합니다.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종교계가 삼위일체가 되어 전문화 되고 특화된 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는 사찰 땅이 많잖아요. 이런 공간을 활용해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면 불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무척이나 클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장은 불교 복지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장애인들의 자활과 재활을 책임지면서 장애인복지개선에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고 있는 이 원장은 복지의 불모지였던 불교계에 복지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준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런 그가 불교를 만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의정부중학교 시절 신실한 불자였던 국어 선생님이 불교학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봉선사 조실 운경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법문을 들었다. 의정부시 불자 학생들이 모인 이 모임의 이름은 삼보학회였다.

이때 들은 법문이 ‘입지여산(立志如山) 안심사해(安心似海)-뜻은 태산처럼 굳건하게 하고 마음은 바다처럼 편안하게 하라’, ‘몸 정성 마음 정성’ 등으로 이 뜻을 새기며 불교에 입문했다. 리더십이 강했던 이 원장은 중고등부 불교학생회의 회장직을 도맡아 했다. 또한 경기북부 불교연합회를 조직해 조계사 학생회와 운동회를 개최할만큼 적극적이었다. 그런 중에서도 그가 가장 큰 자랑거리로 삼은 것은 문학의 밤 형식으로 진행된 백련예술제였다.

“이웃종교 학생회는 문학의 밤을 매우 성대하게 치루는데 우리는 왜 이런 게 없느냐 생각이 들었죠.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보자고 마음 먹었죠. 백련예술제를 만들어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제 3회 때는 판을 좀 크게 벌였죠. 시민회관을 빌려서 공연을 했어요. 가수 송창식을 무료로 섭외했는데 2천여 명의 관중이 찾아와 시민회관을 꽉 채웠죠. 이후로 25회까지 이 행사가 지속되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밀려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

1978년 이 원장은 고려대 심리학과에 입학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대불교학회에 가입하게 된다. 이곳에서 월경사, 송광사, 풍도사 등에서 동·하계 수련회를 거치면서 탄허, 경봉 스님 등 당대를 대표하는 스님들을 만나 큰 가르침을 받았다. 또한 정릉 봉국사 불자와 스님들과 함께 청년회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다.

1980년 군에 입대할 이 원장은 육군 20사단 의무대에서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힘든 군생활에 무작정 종소리를 듣고 그 길을 따라 갔더니 거기에 호국독도가 있었다.

“군법사에서 불교도나고 묻더라고. 그렇다고 답했죠. 품고 목탁을 칠 수 있다고 했더니 군종병을 시키더라고. 동지 때는 팔죽 쏘고 부처님오신날은 등 만들어 남들과 다른 군생활을 했어요. 또 인군 절에 들러 인맥이 닿았던 큰스님 이름을 대고 떡을 얻어와 부대 사병한테 나눠주곤 했어요”

하지만 대학졸업 후 대구그룹에 입사하게 되면서 이 원장은 팽팽한 불자로 돌아가게 된다. 하루하루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불교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듯한 서운함이 있었다. 1995년 보건복지부 장관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10년을 일했던 대구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복지라는 새로운 분야에 발을 들여 놓게 된다. 이는 복지의 불모지였던 불교계 복지의 틀을 잡을 수 있 계기를 마련하며 조연자 역할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당시 불교는 복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잡혀 있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있다보니 이웃 종교가 복지 예산을 다 타 가고 있더라고. 그러니 답답할 수밖에. 그래서 스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불교계가 이 분야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게 됐죠”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전신인 생명나눔실천회 창립, 봉선사 불교 어린이집 개원, 승가원 정식법인 등록, 노인요양 시설인 양양 보리수 마을 설립 등의 국가 예산 지원을 돕는다. 이는 불교계 복지가 자리잡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계기가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 비서관직에서는 물러나게 되지만 이 원장은 복지 포교의 원력을 이어나가고자 결심한다. 의정부불교사우연회회의 ‘좋은일하는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지고 이 원장은 여기서 사무국장을 역임하게 된다. 이 모임의 중점 사업은 자비의 음식 나눔이라는 슬로건으로 하는 푸드뱅크 사업. 즉 의정부 양주 지역의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을 위한 무료 급식과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불자 국어 선생님 도움으로

불교와 인연 맺어 학생회 창립

의정부시 삼보학회 조직

문학의 밤 백련예술제 개최

보건복지부 비서관 재직 시절

불교계 복지 예산지원 도와

자비의 음식 나눔의 집

불교의료법인 연화복지의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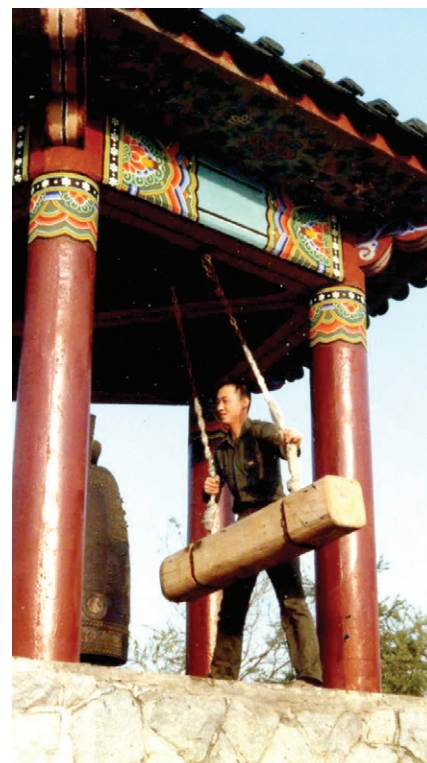
불교 복지 포교 영역 넓혀

“지역의 남은 음식과 식재료들을 거둬와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도시락 배달을 했어요. 처음부터 후원자가 있어 시작한 일이 아니어서 모든 것이 부족했죠. 그러나 음식을 준다는 것은 어디든 찾아다녔어요. 배추가 풍년인 해는 수익성이 없어 밭떼기 그대로 버릴 판인 배추를 회원들과 직접 찾아가 뽑아왔어요. 한 오리농장에서 오리를 산 채로 준다고 하여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을 데리고 가 직접 잡아오기도 했죠. 그때는 자체 차량이 없어 제 자기용을 이용했는데 이렇게 음식을 실어 나르다 보면 내용물이 흘러 냄새가 나기 마련이었죠”

이밖에도 ‘좋은일하는사람들의모임’은 불우이웃을 위한 자비의 탁발행사, 경로잔치, 장학금 지원, 무료급식봉사, 무료 이·미용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99년 이 원장은 복지의 영역을 넓혀 불교의료복지사업 연화복지의원 행정원장에 취임하게 된다. 연화복지원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복지병원으로 초창기에는 전액 무료로 진료를 실시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인근 병원들이 클레임을 걸어왔어요. 돈을 안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최소 비용인 1500원 정도만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현실은 1500원이 없어 병원을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




군복무를 하며 군종병으로 활동하던 시절 타




삼보 불교학생회 지도부사 운경스님에게 감사패를 드리는 장면



연화복지의원에서 환자물리치료를 돕는 장면 중 모습.



##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는 분을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500인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高僧 및 元老 선정(宗師, 大宗師 급만 동참 가능)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법하께서도 법왕청 및 승왕청에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한국 및 세계 고승 500인 한분 한분의 공적과 활동 내역을 기록한 고승 인명사전을 발간하여 지구촌 곳곳에 배포하여 간직하게 할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세계 법왕청을 설립하고 법왕 및 승왕을 추대하고자 하는 불교사에 개인의 명예와 독선조차 하심으로 자신을 내려 놓으시고 헌신적 희생정신으로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십시오. 법왕청 설립에 헌신하신 업적이 불교사의 한 페이지에 큰스님의 이름이 장식되었으면 합니다.

世界 法王 & 僧王 推戴委員會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 시작했습니다

世界佛教高僧團人名辭典

세계 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1인 A4용지 1장 분량 소개

세계 고승단 인명 사전 편찬 진행중입니다.

법하께서도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계불교 고승 및 원로 500인. 법왕청 및 승왕청 내각 580인

자랑스런 불교계 고승단 큰스님 총 1080인


추진위원으로 활동하심을 모든 스님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불교사의 영광이요 불교계에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개별통지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한국불교 범종단 총연합 협의회 회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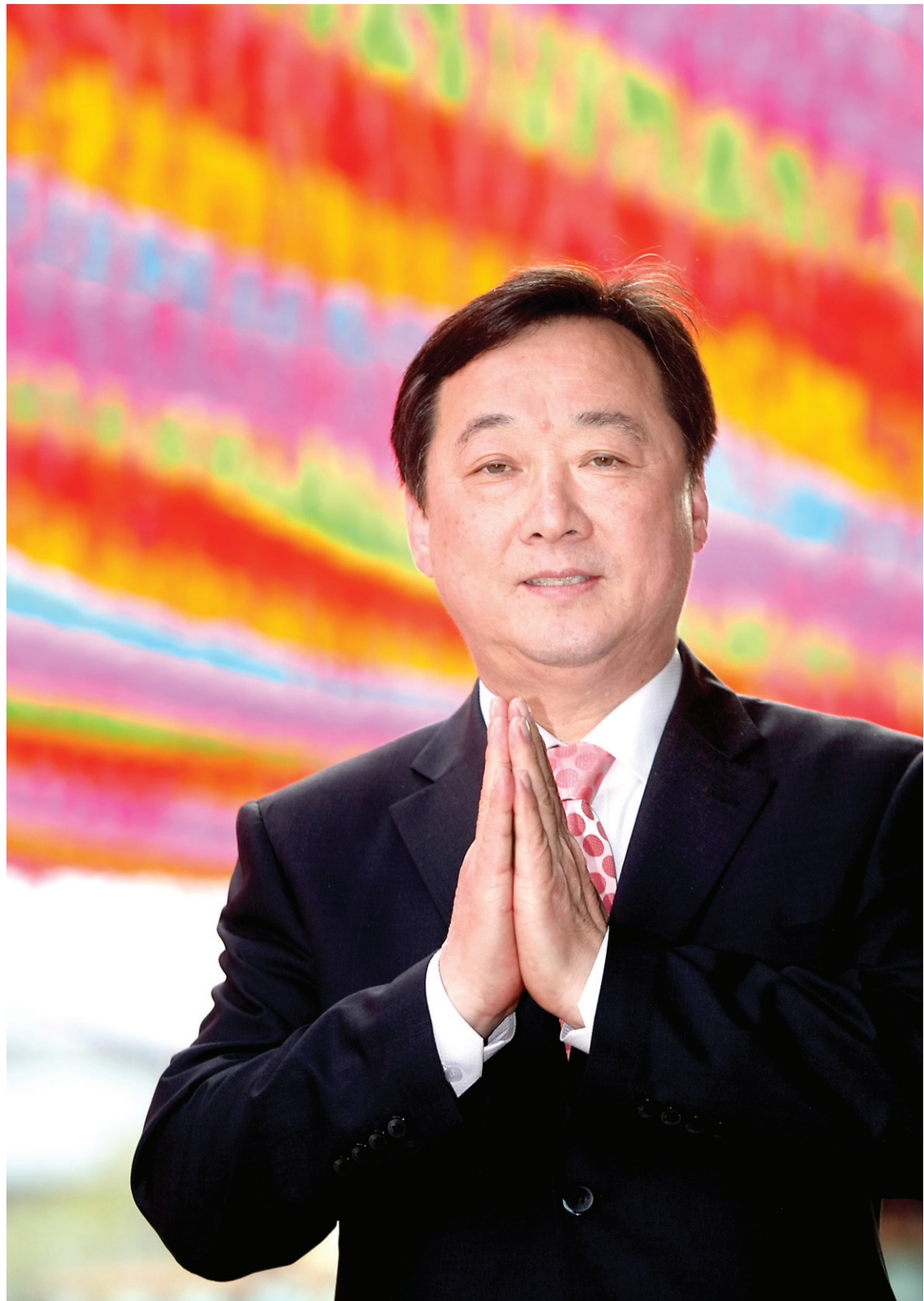
미얀마 연방정부 한국주재 미얀마 명예대사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이건식 원장은 ... 1958년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읍에서 출생, 의정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 심리학과와 정책대학원을 졸업했다. 이후 단국대 행정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대구그룹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좋은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무국장, '자비의 음식 나눔의 집' 소장, 연화복지의원 행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사진=박재원 기자

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화복지원의 의료장비들은 세월만큼이나 낡았다. 후원자를 모집해 앞으로 의료장비의 재정비를 해야할 시점에 온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낡은 시설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르신들은 이곳을 찾는다. 그 이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의료장비가 많이 낡았지만 어르신들은 이 병원을 좋아해요. 간호사들이 10여년 함께 하다보니 얼굴만 보고도 환자의 차트를 찾을 수 있을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또 초파일날은 떡과 단주를 하나씩 선물해요.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이날만큼이라도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지역민들에게 되새겨주기 위해서죠.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의료활동을 이어가다 보니 지역 어르신들도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원장은 이후 2005년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파키스탄 지진피해 해외 자원봉사에 불교계를 대표해 의료 구호를 펼치기도 한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기반으로 이 원장은 지난해 1월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이끌어주는 일산직업능력개발원장으로 취임한다.

이 씨는 최근 이곳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종교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불교모임의 대표를 맡아 11명의 불자 장애인을 데리고 불교모임을 만든 것이다. 인근 절을 빌려 법회를 시작했고 초파일 전에 창립법회를 따로 가질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교계는 장애인들을 환대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으며 이 원장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불교계가 수탁 받은 복지관은 노인복지관이 많잖아요. 기독교계가 많은 장애인 복지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불교계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죠. 이는 스

님들 스스로 장애인을 버거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해봐요. 그 예로 불교계에는 장애인 학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만큼 스님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장은 종교계와 지자체,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장애인학교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불교계가 땅이 많다 많은데 그 땅을 잘 활용하지는 못하잖아요. 불교계도 이제 장애인 학교 등의 설립을 통해 복지의 영역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복지라는 것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더 넓은 차원에서 소외 계층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복지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전문 능력 배양으로 취업알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은 현재 컴퓨터, 디자인 등 장애인들의 전문 능력 배양과 재활치료를 병행해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회 보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교계도 장애인 복지에 좀 더 힘을 기울여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 복지의 미래를 늘 걱정하는 이 원장은 고려대 정책대학원, 단국대 행정학과(박사과정) 등에서 꾸준히 공부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통일이후 복지정책'에 관한 석사논문을 발표하면서 복지 미래의 앞날을 내다봤다. 이 원장은 "통일후 복지는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 불교는 어떻게 포교해야 하나를 고민해야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2005년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 당시 응급구조단으로 활동



장애인 직업능력교육시설인 일산장애인능력개발원 체육행사.

### 전법일기

#### 영화감상회와 영화제

나는 5년 전 보성선원에 온 이래 도심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써야 할 것인지 고민해왔다. 그래서 세 가지로 방향을 잡았다. 첫째는 신행공간, 둘째는 복지공간, 셋째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이었다.

신행(信行)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어느 절이나 다 하는 거니까 특별할 건 없다. 문제는 복지(福祉)와 문화(文化)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불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해 보면 불자는 대부분 여성인데다 노령층이 많다. 나는 젊은이들을 집에 오게 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써야 할지 깊이 생각했다. 문화의 여러 분야 가운데 영화와 음악에 눈길이 갔다.

영화는 시간과 공간의 틈을 좁혀준다. 뛰어난 상상력과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선사시대의 이야기나 수천 년 후 인류의 미래를 생생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아프리카 오지부터 뉴욕 중심가는 물론 우주 공간까지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영화를 통해 우리는 과거·미래와 만나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영화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상하는 모든 것이 표현 가능한 매체이다. 우리나라는 관객이 연간 1억 명을 돌파할 만큼 영화를 좋아하는, 세계 6위의 영화대국이다. 이를 잘 활용하기만 하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영화나 음악, 그 자체가 신심을 일으키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그걸 즐기게 한 후 한두 번 절에 오다보면 절 문턱이 점차 낮아질 것이고, 인연을 만나면 신심이 생길 수도 있다. 교회에 투표소를 유

### 물거품 된 영화 포교의 꿈



그림·박구원

#### 영화상영으로 청소년 포교 발원 참여자 줄어 중단, 아쉬움만 남겨

치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나는 절에 영화감상 설비를 갖추었다. 빔 프로젝터와 150인치 스크린, 5.1 채널의 서라운드 앰프, DVD 플레이어와 블루 레이 플레이어까지 장만했고, 형편이 나아지면 바깥 요량으로 중고 스피커도 구했다. 음질이 썩 뛰어난 건 아니지만 전 쟁영화에서는 전투기가 머리위로 날아다니고 음악영화에서는 오케스트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

창문에는 두꺼운 암막(暗幕) 커튼을 쳐서 낮이나 밤이나 영화를 볼 수 있게 했고, 좋은 영화로 꼽히는 DVD나 블루레이도 준비했다. 신도들에게 매주 토요일 좋은 영화를 상영한다고 공지하고,

영화에 해박한 시인 한 분을 초청하여 상영 전후로 영화해설을 해주는 시간도 넣었다. '잉글리쉬 페이션트' '신데렐라 맨' '마더' '내 어머니의 모든 것' '밀양' '자전거 도둑' 등의 영화를 틀어주었다. 처음부터 참여인원이 많지 않더니 시간이 갈수록 더 줄어들었다. 토요일이라서 그런가 생각하고 평일에 해봐도, 시간을 밤에서 낮으로 바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영화감상회는 중단됐다.

기왕 내친 김에 봄·가을로 '영화제' 라는 걸 시작했다. 처음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를 7일간 보여주었다. 다음엔 미술가, 음악가, 치매를 주제로 한 영화도 일주일씩 상영했다. 물론 전문가가 영화를 해설해 주는 자리도 마련했다. 지역 언론에 보도하게 하려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이 오셨고, 참석자들은 "참 좋다!"를 연발하였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횡수를 거듭할 때마다 참가 인원이 적어지더니 이 또한 문을 닫았다.

영화를 상영한 곳은 약사여래불을 모신 법당인데 조밀식 건물이라서 냉난방을 하더라도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웠다. 게다가 날마다 공간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안락한 의자를 설치할 수도 없었다. 지금은 영화설비가 어린이법회 때 가끔 활용된다. 영화를 통한 전법의 꿈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몇몇 사람들은 음악감상회와 더불어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졌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서울만 땀이라도 성공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내가 우리 신도들의 감성이나 취향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닌지, 아쉬움이 크다.

한복 스님(재)선학원 대구 보성선원 주지

##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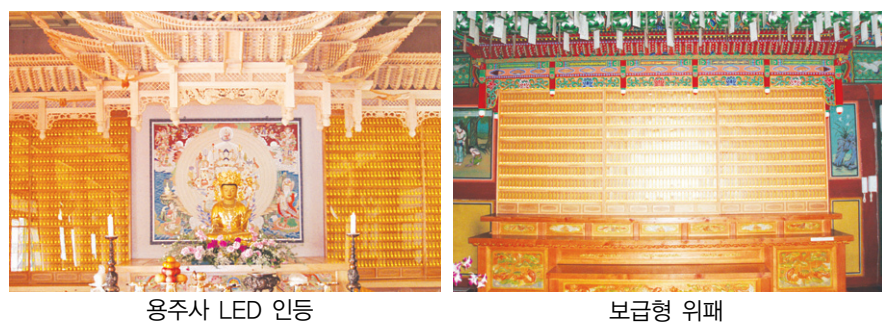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흥은사



운장대 인등

####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생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종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료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